

불교계 공부방에서 성적 쑥쑥

저소득층 자녀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

여름방학이 문턱에 서 있다. 학생들에게 방학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되돌아보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학기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역에선 값비싼 학원·과외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 '독서실' 등이 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2일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공부방을 올해 74 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교계에도 '방과 후 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서울지역에 약 20여 곳 정도다. 독서실의 경우 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면, 지역 내에서 영어, 수학, 논술, 한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강좌도 시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동대문구청청소년독서실은 열람실은 물론, 매주 2회씩 무료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지도하고 있다. 또 고민 상담실, 동아리 방을 운영하며 청소년들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여름방학 동안 지역 곳곳 불교계 공부방·독서실 인기
다양한 문화·체육체험 활동 상위 1% 위한 특별강의 진행

감소시켜주는 다양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길거리 농구대회, 뽀내기 대회, 영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신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계2동청소년공부방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고려대 등과 연계해 청소년 학습지도 멘토링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연극, 영화, 음악회, 스포츠 관람 등 문화체험, 캠프, 래프팅 등 자연체험을 비롯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공부방·독서실 외에 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매주 마다 직업체험활동을 비롯해 동아리 마당을 통해 '환경'을 주제로 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또 7월 27일~8월 14일 '오감자극 미술놀이'를 비롯해, 7월 20일부터 '잃어버린 대륙의 꿈'을 찾아서', 8월 11~25일 '청소년 환경활동가 만들기 프로젝트' 등 특별 문화프로그램들도 진행 예정 중이다.

대구달서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방학특강으로 7월 25일~8월 22일 자기주도 학습기법을 활용해 상위 1%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특별수업과 우등생만드는 혼자공부법 등을 실시한다. 또 과학상자, 더 와이즈 테크니, 방송아카데미, 공예세상, 그림동화책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강좌도 진행 예정 중이다.

이은정 기자 soe94@hyunbul.com



여름방학을 맞아 불교계 공부방에서는 영어, 수학, 논술, 한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강좌도 시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학때 갈만한 지역공부방 및 센터

구분	시설명	지역	연락처
독서실	거여청소년독서실	서울거여2동	(02)431-1425
	금호청소년독서실	서울금호동1가	(02)299-4214
	담심리청소년독서실	서울담심리동	(02)243-3648
	동대문구청청소년독서실	서울장인2동	(02)247-3120
	용인청소년독서실	서울용인3동	(02)301-5384
공부방및수련관	전일청소년독서실	서울전농동	(02)2241-9836
	상계2동청소년공부방	서울노원로	(02)834-2118
	등동청소년공부방	전북남원민원리	(063)636-0770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구로동	(02)838-1318
	목동청소년수련관	서울목동	(02)2642-1318
	대구달서구청청소년수련관	대구상인3동	(053)639-7101~5
	대구서구청청소년수련관	대구이현동	(053)571-2451
	대구수성구청청소년수련관	대구황금1동	(053)761-9400
	구덕청소년수련관	부산서대신동3가	(051)446-4685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부산동산동	(051)405-5223
방과후교실	선재방과후교실	서울분당	(02)817-8052
	신강중사회복지관부설방과후교실	서울신강동	(02)831-2755
	쌍문3동방과후교실	서울쌍문3동	(02)900-8501
	희망안길기림과후교실	서울용두2동	(02)926-5616

불교복지 영성과 함께해야 발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사진 왼쪽부터 이용권 소장(불교사회복지연구소), 권경임 대표(복지영성연구소),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승자 교수(중원대 사회복지학과), 임해영 교수(동국대 전산원 사회복지학과)

최근 사회복지실현현장에서는 복합적인 개인문제들과 사회문제들로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내면적이고 환경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종교적인 배경이나 영성적 측면들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7월 10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통합적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불교적 영성과 복지'를 주제로 불교적 영성과 복지를 위한 주제로 2012 상반기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사회복지와 영성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좌장을 맡은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장)의 진행과 함께 도승자 교수(중원대 사회복지학과)가 '통합적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영성적 접근'을, 권경임 대표(복지영성연구소)가 '불교적 관점에서의 영성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도승자 교수는 "영성(靈性)이란 단어가 기독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것은 지금도 한국적"이라며 "영성이란 것은 종교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서 종교 본질적인 면을 표현하는 단어가기에 때문에 이슬람, 불교 등에서 거리가 없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영성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교계 복지분야에서는 사회현장자들이 실제 사회복지와 영성의 연결고리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임 대표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영성(불성)의 개념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성복지"라며 "불교계도 사회복지실현에 있어 종교적 영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윤리적 지침과 실천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어머니 설득으로 장기기증 결심"

양상문 야구해설위원,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

"장기기증이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나눔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양상문 야구해설위원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나섰다. MBC스포츠플러스에서 야구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양상문 위원(사진 왼쪽)은 9일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나눔 치료비 지원금 전달

용문사 현천 스님, 최정기 감독(불암사 불일야구단·배재고 코치)과 선후배로 인연을 맺어온 양 위원은 두 사람의 권유로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

양상문 위원은 "홍보대사는 두 분의 권유로 하게 됐지만, 사실 장기기증 서약 결심은 어머니께서 설득하셨다"면서 "몇 년 전에 이미 자식들을 다 앓아 놓고 장기기증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일련 스님은 양 위원에게 직접 고

른 단주와 자서전을 선물하며 "빛나는 스타였고, 훌륭한 지도자였으며 지금은 최고의 해설가인 양 해설위원이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런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생명나눔의 원력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의 아들 승운 군도 생명나눔 홍보대사를 결심한 아버지를 보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아직 미성년자라 어머니의 법정대리인들의 동의를 얻어 등록했지만 양 위원은 "자식교육 잘 시킨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02)734-8050 이은정 기자

우리복지관 주력사업은 이것 ②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여성정신장애인 프로그램 '흰여울'

공황장애, 알코올중독 등 치료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의 '흰여울' 프로그램은 정신장애로 인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주거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에게 일상생활 능력의 향상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가 정신질환 대상자는 질병 외에도 주거 환경의 열악, 실직, 사회로부터 소외, 여가 활동 부재 등으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신 장애인이 자립해 생활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건강관리, 식사조절, 취침 시간과 같은 일상의 활동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심리·신체적 의존을 최소화 시켜 자기결정에 충실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의 '흰여울' 프로그램은 정신장애로 인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주거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에게 일상생활 능력의 향상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경우가 많아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경청하기 등과 같은 훈련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요리, 영화 관람, 야외 등산 등의 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는다.

권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은 우울증과 조울증, 기분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집에만 있거나 휴대폰, TV, 컴퓨터, 인터넷에 중독돼 바깥출입을 꺼리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먹는다면 "하지만 사생활이 보장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점점 외부로 나오는 일도 많아지고 복지관 내 연계 프로그램도 신청하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 간의 지지체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서로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일상생활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형성의 기회도 진행한다.

올해 참가한 여성들은 10명으로 평균연령이 30~40대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복지관에 모여 전문강사와 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사회기술교육 △여가문화지원 △야외활동에 참가했다.

사회기술교육에서는 건강관리, 대화기술, 약물관리교육, 경제교육, 감정관리 등이 진행된다.

권현정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 중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관리를 신경 쓰도록 교육시킨다. 또한 혼자 있

는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 간의 지지체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서로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일상생활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형성의 기회도 진행한다.

올해 참가한 여성들은 10명으로 평균연령이 30~40대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 복지관에 모여 전문강사와 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사회기술교육 △여가문화지원 △야외활동에 참가했다.

사회기술교육에서는 건강관리, 대화기술, 약물관리교육, 경제교육, 감정관리 등이 진행된다.

권현정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 중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관리를 신경 쓰도록 교육시킨다. 또한 혼자 있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슬레이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이 오 칼 라 지 붕 공 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